武裝警官隊 端川全市를嚴戒

死者十三、危篤九名、負傷十名 商民撤市와休校繼續

이십이일부터 단천(端川)읍내에는 무장경관대(武裝警官隊)가 읍내각지를 순회하며 엄중경계하는중인바 상점(商店)은 전부문을닷고 밤이면 통행을 계지하며 동군광천면(廣泉面)방면의 전선(電線)은 단절되엇는바 이십이일까지 죽은사람은 십삼명, 위독이 구명, 경상이 십명이다 (단천특전)

七十名檢擧 四十七名騷擾罪로

이십일일에 실지검증을하여 警官이出動하야鎭撫

利中面에서는 納入告知書還付

단천사건에 대하야 경무국의 발표에의하면 그후 큰변이 어가잇섯스나 대체인심은 진정되엇고 이십일일단천서에서 실지검증(實地檢證)을하엿는데 검속자는 처음의 오십삼명외에다시 이십육명을 검거하여 총수칠십구명에 달하든중 이십이일에 삼십이명을 석방하고 잔여의 사십칠명을 소요죄(騷擾罪)기타로 취조중이며 또 더욱이 십일일에 단천군리중면참동리(端川郡利中面)의 삼림조합원(森林組合員)수십명이 면사무소에 쇄도하야 삼림조합비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를 면사무소에 반환하려는 급보를접하고 단동주재소(駐在所)로부터 다수경관이 달려가서 진무해산식히고 군중은 대표자 두명을선출하여 면사무소와 교섭중에 잇다

端川事件의發端

蓮臺里의伐木取締

死傷이二千七百餘名 田畓浸水十五萬町步

二十三日午前까지調査判明된것

	人命	家屋	田畓	道路	橋梁	堤防	家畜	船舶

高城、三陟、麟蹄 三郡死者六十餘

가옥피해도막대하다고 新發表된最近被害

船舶被害卅八隻

絶海孤島鬱陵島에

果樹園損害 七萬圓以上

鐵原、花溪間 電車運轉可能

長安表訓兩寺 名所流失不少

江原道楊口郡 多數가浸水해

近二百의死者外에 坐而待死의五百人

寧越水周面災後慘狀

全朝鮮各署와連絡 某事件容疑大檢擧

新義州、東京、水原、大邱、定州其他서 東京警視廳員이急遽히京城에出張 鍾路署徹夜大活動

朝鮮農民總同盟 新陣容을整頓

書面大會開票決定

鐵窓에愛人을그려서 發狂한一少婦

獄嗜미레서高城으로世上呪咀 알고보니共黨遺孽夫人

金剛電鐵의 橋梁도流失

東海岸方面 電信이復舊

雲泥洞의倒壞 老婆一人壓傷

咸興朝鮮窒素中心으로 某重大事件發露?

무슨음모사건이나잇섯는지 青年二十餘名檢擧

남의딸을꾀여간 女優李月華被訴

배우만드러준다고속혀서 『애라』老母에게被訴

崔昌植、朴應七 兩人公判延期

南滿與京縣에서 朝鮮○○團討議

적극적행동을의

朝鮮人汽船通航組合 幹部三人을檢擧

三萬組合員憤慨

各官營事業에 中國苦力九十萬

조선로동자는일자리를거의다일허 問題되는中國勞働者

朝鮮物産獎勵會實費診療院

列車、自働車衝突 運手二人死亡

함경선주석역부근에서 乘客은無事

菓子職工예樂托

研藝會公演

二十九日에 水害救濟에

學藝

年號와帝號의制(完)
東西帝號의比較觀

文一平

그러나 帝王의稱號에 依하야 古今政治思想의 變遷까지 엿볼수잇는것이다 ……

漢土 ……말하면 五胡以後는 事實上 胡漢의 別이업시 帝號를 稱하엿지만 오히려 漢土라는 地域的制限은 잇섯다 그러나 地域的制限도 五代以來로는 마자에 여저 漢土에 寸地를 두지안흔 塞外族들이 함부로 帝號를 稱하엿다 그리하야 今日에는 帝號가 거의 王號의 대신으로 獨立國의 主權者 사이에 稱하게되엿다마는 다시 돌이켜 帝號의 來歷을 삺혀보면 帝號란 唯一無上의 尊稱으로서 當時世界의 大統一主를 意味하는것이니 秦漢諸帝가 모다 그러치안흔것이 업다 그럼으로 大統一主가 아니고 帝號를 稱할때에는 閏統이니 僭稱이니 하는 問題가 생겨 眞正한 帝號로 肯認하지아니한 것이며 이런 非正統的의 帝는 貶하야 帝라하지 안코 主라고 쓰는것이 支那史家의 筆法이엇다

그러나 漢族은 文化至上主義임으로 아무리 塞外族이라도 中原에 들어와 漢化만되면 一例로 包容하게되야 種族的差別은 甚하지아니하나 그대신 文化的優越感이 자못强하야 어연種族이든지 對等視하지아니한 배문에 自國以外에는 帝號를 許하지아니하엿스며 漢族文化의 影響을바든 周圍諸族도 역시 漢土의 政治的思想을 容認하엿슴으로 帝號는 漢土에 君臨하는 主權者의 尊稱인줄만 생각하엿다 적어도 이러한생각이 秦漢으로 隋唐에 이르기까지 一千年동안은 東洋사람의 頭腦를 支配하든것이다

遼金 元淸에 이르러는 비록 이 地域的制限이 얼마큼 깨여저 먼저 帝號를 稱하고 다음 漢土에 入據하게되엇지마는 他日 漢土에 入據할 準備로서 이처럼 漢土式의 帝號를 稱한것을보면 역시 漢土中心的思想에서 全然히 버서난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思想이 홀로 東洋에만 그러한것이 아니다 한번눈을 돌려 西洋을보면 羅馬帝國이 東西로 兩分되어 西羅馬가 먼저亡하고 東羅馬가 나종亡하엿지만 西羅馬帝國의 亡한뒤를 繼承하야 西歷八世紀末에 再興한 『카ー르』大帝國과 밋그것이 瓦解된뒤에 十世紀中頃에 成立된 神聖羅馬帝國은 西歐洲에 唯一한 皇帝로서 그帝國이 十九世紀初에 이르러 『나폴레온』에게 滅亡할때까지 ……西歐洲에에만 皇帝二人以上이 同時並立하는 奇現象은 업섯다 『나폴레온』은

世界 統一의 大理想下에 『카이서』『월리헴』一世는 大統一의 主義下에서 羅馬式의 尊號를 쓰게된것이 아닌가 하고본즉 帝號는 羅馬帝國의 繼承者로 自任하나 또는 그의 繼承者로 아니면 稱하지 못하엿든것을 알겟다 그럼으로 比較的 羅馬帝國을 ……그러나 世界上 大領土를 가진 英國도 帝號를 稱하지 아니하다가 『빅토리아』女皇에 이르러 印度를 領有함에 미처 비로소 帝號를 쓰게된것 (但그本國에 對해서는 依然히 王이라稱함)(完)

詩人과詩의槪念(一)
根本的疑惑에對하야

片石村

당신은 나의生活을 사랑하기 前에 나의藝術을 사랑하옵소서 ― 하고말한 『풀로ー벨』은 十九世紀에 生存한 藝術家엿다고 文學史家는 가르처주리라 그래서 『藝術을爲한藝術』은 『人生을爲한藝術』에 依하야 完全히 克服되엿다고 그들은 가르처주리라

＝藝術이＝ 藝術至上主義라고하는 夢想에서 눈을뜨고 象牙의塔에서 街頭에로 進出한것은 벌서 嚴然한 歷史的事實이라고 또다시말하리라

우리는 勿論以上의 諸命題를 經驗的事實로서 首肯한다 그러나 우리는 藝術과 藝術家에 對한 엇던偏見과 錯覺이 現代에잇서서 오히려 藝術의 分野뿐아니라 汎히 모든 文化體系속에서 不當한 地位와 普遍妥當性을 主張하는것을 본다 最近에 우리의 耳目을 놀라게한 藝術主義의 再現이 거의 世界的現象임에서 우리는 偏見과 錯覺의 亂舞를 目睹한다

＝過誤가＝ 비록 片鱗에 不過하다하여도 우리가 問題以外로 삼기에는 넘우나 쌕리깁게 殘存함을 發見하고 다시 놀람을 마지못한다 나는 暫間便宜上 나의 思索과 考察을 藝術의 全分野가아니고 다만 詩의 世界에 局限하려고한다

그리하야 詩人의 社會的位置의 根據는 엇더한가? 詩人이라는 特定한 部類의 사람은 存在할것인가? 그들이 作用하는 社會的機能은 엇더한가? 먼저 詩人이 『詩』라고하는 槪念의 內包는 무엇인가 그社會的機能은 무엇인가? 至今까지 우리가 詩人과 및 詩에 對하야 품고잇든 觀念은 正當한것인가 아닌가?

＝이것들＝ 이 내가 이작은 考察에서 取扱하려는 問題들이다 우리는 詩가 發生하려고하든 誕生時代의 原始部落에잇서서 詩人은 엇더한關係에 位置하엿든가? 하는 疑問에서부터 出發하지 안흐면 아니된다 그러나 이時期에는 우리가 今日에 使用하는 純粹한 意味의 『詩人』이라는 槪念에 妥當하는 詩人이라는 存在는 낫하나지안엇다 다만 詩를 읇는 사람은 잇섯다 그들은먼저 部落民의 한사람이엇다 그는 部落民의 生活을 生活하고 그 感情을 自身의것으로 늣겻다 그는 部落民과 同一人이엇다 그래서 部落의 生活속에서 『그生活의餘技』로

＝그感情＝ 과 憧憬을 읇흔것이다 (여긔서 詩라함은 『포엠』아니 그보다도 純粹한 『리릭』 抒情詩를 意味하는것이다 敍事詩의 發生은 祭祀 口誦 傳說等의 社會的機能的原因을 가지고 잇섯고 이런意味의 敍事詩는 近代의 散文이 發生함과 同時에 그 存在의 根據가 稀薄해지기 始作하야 嚴密한 意味에 잇서의 敍事詩는 至今은 벌서 存在할수업다)

그러는사이에 經濟的關係의 分裂로부터 貴族과 市民은 成員으로한 帝制의 支配階級과 被隸라고하는 被支配階級이 分離對立하게되엇다

詩는 發生學으로 生活의 本質的部分은 아니다

＝그餘波＝ 에 不過하엿다 그러고 時間上 餘裕를 必須로한다 原始部落에서도 詩를 쓰는 사람은 흔히 怠慢한 部類에 屬하엿다고한다 이런 時間的餘裕를 必要로하는 詩로 必然的으로 原始部落이 兩個의 階級으로 分化對立할때에 部落全體의 所有로부터 支配階級의 專有에로 移屬되엿다 왜 그러냐하면 가장 有閑階級은 둘림업시 支配階級이고 그럼으로 그들의 獨占한 位置는 가장 詩에 有利한것이엿다 이러한때에 詩를 쓰는 사람은 支配階級自身이여서 支配者의 生活을 노래하고 그 理想을 詩속에 鑄型하엿다 이時代까지도 『詩를쓰는사람』이라는 屬性은 實로 支配階級中의 特殊한 數人에게

＝專屬한＝ 性質上의 指標엿다 그러고 詩人이라는 特殊槪念이 아직도 그 外延이 廣汎하엿든것이다 이러케 支配階級自身이 그階級의 享樂과 鼓舞의 道具로서 所有하든 詩는 그들의 膨脹하는 富와 그것에 比例한 閑暇한時間의 累積과 이 階級의 特性인 享樂主義等 諸條件에 依하야 다만 生活의 一餘波인 位置에서 飛躍하야 詩獨自의 存在의 成立을 보게되엇다 即支配階級自身이 詩를읇흔 代身에 詩人이라는 一部分의 詩製作者로부터 供給되는 詩에 依하야 그들의 膨大되는 享樂의 慾望을 滿足시키기 始作하엿다 ― 詩人의 誕生記는 實로 이러하다

禪窓道話 三

金泰洽

君子는目擊而道存

儒敎孔子께서도 無言의道를 쓰신 말슴이 잇스니 孔子家語에 볼것가트면 이런말이 씨어잇다 夫子當時에 溫伯雪이라는 賢人이 잇섯는데 그의 일홈이 엇지도 굉장하게 天下에 놉핫든지 孔夫子로도 그를 보고저하는 渴望이 간절하게되엇다 그래서 夫子께서 항상 말슴하시되 溫伯雪이라는 사람이 엇던 사람인지 좀보앗스면 조켓다고 弟子들에게 말슴하심이 한두번이 아니엿다 그러든차에 어느날 夫子께서 여러 弟子들과 가티 어되를 가시는길에 溫伯雪이라는 사람을 마츰맛나시게되엿다 弟子들가운데는 溫伯雪의 얼굴을 아는사람이 잇섯는지라 엇던 눈치쌔른 弟子가 夫子에게 저곳에 거러가는 사람이 溫伯雪이로소이다 하엿다 그리한즉 그러케 보고십허하시든 夫子께서는 蓋(陽傘가튼것)를 기우리고 말업시 보고 지내가실뿐이다 그럼으로 비거름을 지내가서 청 미필필한 子路가 怪異쩍게 생각하고 『先生님 그러케 보시지못해서 懸念하시든 溫伯雪을 지금 맛나시고도 一言半辭의 아모말슴하나가 업시 傾蓋만하시고 지내시니 엇진까닭입닛가』 夫子대답하시되 『君子는 目擊만하여도 道가 存하나니라』 하시엿다 이것을보면 孔夫子께서도 無言의道를 얼마나 직히시엿든가 함을알것이다

……○……

讀古書者는惟味糟粕而已

東京留學生張君이 自働踏切機發明
頻繁한事故의防止와 百餘萬圓의經費節約

東京日本大學政治科二年에在學中인 京城出生張迪松君은 今般 自働式『踏切』機를發明하야 特許局에特許願을 提出中이라는데 萬一이것을使用한다면 朝鮮이나日本은勿論이오 實로世界的으로普及되어 頻繁한各地의 汽車事故를 完全히 防止할것은 勿論이오 그 費用의 節約에잇서서도 實로 鐵道運輸上至大한 貢獻이되리라는바 踏切一個所 設備에 約二百圓을 要하나 朝鮮、日本、滿洲、臺灣等 鐵道沿線의 踏切만하야도 約三萬個所인데 그 番人의 月給을 平均四十圓이라하면 每朔百二十萬圓을 要함으로 經費節約에도 大端한差가 생길것이라한다 (寫眞은張迪松君)

鍾이운다

睦一信

벗이여! 鍾이운다
저 東녁의하눌!
먼동이 터오르는 저하눌에
우렁찬 새벽鍾이 울린다
빩앗케 타오르는 光明의것속엔
한줄기의 씩씩한 希望의빛
그속에 그속에 숨어잇나
오! 벗이여 드르라!
저 우렁찬 鍾소리를!!

◇

벗이여! 鍾이운다
저東녁의하눌!
露紅의 구름떼를헤치고
아참햇빗치 비최이나니
오! 그는잠을깨우는 색鍾소리!
벗이여! 내사랑하는벗이여!
눈을부비고 보라! 더온누리빗을!
귀를기우려드르라! 莊嚴한 저鍾聲을!
오! 잠자는벗이여!
鍾이운다! 鍾이운다!

『쟈코모·레오파르디』의 『푸로미시우스』(二)

一能生 譯

賞品을다라고 競爭에參加한 다른 發明者들中에는 비록 拒絶은햇지만 하여간 賞品을탄셈인 以上 神들에게 對하야 嫉妬하는마음을 먹거나 또檢事官들의 決定에 不平을말하거나 或은 그들의 判定에 抗議하는 者라고는 一切로 업섯스나 오즉 한사람의 말성쑤럭이가 잇섯다 即그는 『프로미시우스』神이니 太初에 사람을 만들때 原料로쓴 진흙의 模型을 出品하야 이競爭에 參例하엿는데 그出品에는 그의 發明한 人類의 性質과 機能을 仔細히 쓴 自筆의 說明書도 添付되어잇섯다

○

이競爭者들이 成不成을 그리 問題삼지 안흔것만큼 『프로미시우스』의 不平이 일으킨 騷擾은 非常한 者이엇다 그러나 이問題를 仔細히 調査한 結果 그가 勝利를 어드랴고 努力하엿든것은 賞타는것가튼 그것보다도 그가 成功한다음에 便利를 어들수잇스리라고 생각되는 엇던 具體的利益에 잇섯다는 事實이 判明되엇다 그래서 그는 月桂樹에는 靈光이 通할수업는 信念을 가저서 녯날 『티베리아스』皇帝가 천둥날을 면 얼는 月桂冠을쓰는것이 行隱이엇다든 이약이와가티 霹靂雨가쏘다질때는 머리를保護하기爲하야 이冠을利用할심보라는 推測을가진者도 잇섯다

○

그러나 『하이파ー네페라스』市에서는 천둥과 번개를하는 일이 전혀업는것을 보아도 이 假說은 거의 支持할根據가 업서지고만다 그래서 再次 確實한 說로 다른사람들의 主張하는것은 『프로미시우스』가 漸漸 나희가 年滿해감을 따라 머리가 허집으로 이러한 窮境에 싸저잇는 다른사람들을 모양으로 亦是 이것을 몹시苦痛스러히 녁여서 그는 『시네시아스』의 記錄한 번머리讚美의글도 못보앗는지 또는읽고서도 밋지를 안엇든지 모르즉이다 ― 아마이생각에서 나왓슬것이다 ― 執政官時代의 『씨ー자』와가티 冠을써서 머리가 버서진것을 감추랴고한것에 지나지안타고 말하는것이다

○

그러면 하여간 事實顚末을 이약이해보겟다 엇던날 偶然히 『푸로미시우스』는 『모ー마스』神을 맛나 이問題를 끄집어내어 議論을하는中 술이니 기름이니 『구리냄비』니하는것들이 지금까지 神性을가진 者가 創造한 最高最貴의 作品이라고하는 저ー人類보담 一層더 重要한것이라고 생각되어잇는 事實을 자조不平스럽게말햇다 그러나 모든 議論을 全部反對쪽으로만 몰고나가는 『모ー마스』를 說服식힐수는 업섯기때문에 다시 『모ー마스』에게 對하야 둘이 作伴한後 地球가운데로 사람이 사는듯한 第一처음場所를 任意대로 擇해서 訪問해보자는 意見을提出햇다

그래서 둘이서는 내기를 걸엇는데 『프로미시우스』는 이 五大洲를 도는동안 或은 그 大多數에잇서서 사람이 宇宙가운데 第一完全한 生物이되는 具體的證據가 드러나리라고 내기를 걸엇고 『모ー마스』는 그反對쪽을 걸엇다 내기의 金額도 決定되엇슴으로 둘이서는 地球로 나려오기를 시작하엿는데 위선 行路를 新世界쪽으로 向하엿다 그것은 新世界란 일홈이 그들의 好奇心을 이르키엇슬뿐아니라 그當時에 이르도록 神들中에 한사람도 그곳에 발을 드려논일이 업섯기때문이다

○

둘이 맨처음에 飛行의 발거름을 옴겨논곳은 지금의 南亞米利加 南쪽인 『포피안』國으로 『카우카』河로부터 그리 떠러저잇지 안는土地이니 그곳에는 사람의 居住를 말하는 만흔 目標와 들과 논밧을 表示하는 形跡과 無數한 道路가 눈압헤 展開되여잇섯다 다만 그길들은 여러군데가 끈커서 伐木한 나무들이 길바닥에 갓득하게 가로뉘여잇섯다 그리고 窮地가터 보이는곳이 여러군데 잇섯고 또 여긔저긔에는 사람의 骸骨들이 궁굴러잇섯다 그러나 이두神은 이러한것을 그리 눈익여보지안코 四方을 둘너보아 사람의 그림자를 차젓스나 한사람도 보이지 아니하엿다 하물며 산人間의 목소리를 들을수잇섯스랴? 그들은 곳 거널다가는 나르고해서 몃十里를 進行을 繼續하엿는데 山과 들은 지나는길에 수업설치안케 보앗지만 산人間이라고는 보지를못하엿다 오즉 이르는곳마다 눈에 뜨운것은 近來까지 사람이 살엇든 痕跡과 只今은 오즉 極度로 寂寞이 깃을드리고잇다는 事實만이 反覆되여잇슬뿐이다 『모ー마스』는 『프로미시우스』에게 이러한말을하엿다 『우리가 오기바로 전까지는 사람이 살엇든 痕跡이 분명한데 지금은 이土地가 이러로록 荒廢해진것은 엇전일일가?』

『쇼펜하우어』의 母親(下)

T P 生

『쇼펜하우어ー』는 [illegible]쩍부터 귀가 잘들리지 들아니하엿다 그래서 그는 『귀가 납분것과 머리가 큰것과 눈이 번적이는것은 우리父親으로부터 遺傳된것이다』라고 말하엿다 그는 일즉이 牧師의 監督下에 暫時 英國에 滯在한일이잇섯다 英國에잇는동안 그는 英語와 英文學을 工夫하엿는데 眼力이 조치못한 關係로 各處로旅行을 단녓지만 아모리 눈에나타나는 風景이 華麗하드라도 그것의 魅力을 늣겨보지를 못햇다

×……×

『나는 靑年時代부터 恒常 陰鬱하게지내엇다 엇던때에 아마 내가 열여덜살때인가보다 아즉 아모것도 아지못하는 주제에 이 世界는 決코 神이 創造하신것은아니고 차라리 惡魔가 創造하엿다고 말하는 便이 適當하다고 생각한일이 잇섯다』

그는 말한일이 잇다 그의 哲學이 亦是 그의 性格으로부터 出產된것도 이點에서 보면 좀 確實해지는것갓다

그의 一生의 大作 『意志와現象으로서의世界』를 쓰는동안은 다른사람에게로부터는 밋친놈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思索에 熱中하여잇섯다 거기에 對한 揷話가잇는데 엇던날 그는 『도렛쓰텐』의 溫室가운데를 거닐면서 혼자중얼거려가며 이상한 몸짓을하엿다

……×……

그때 巡視가와서 『당신은누구요?』 하고무르니까 『쇼펜하우어』는 『만약 네가 내가누구인줄을 아러내면 厚히 賞을주마』고 對答하엿다 그래서 巡視는 그를 뒤에두고 어슬렁어슬렁 自己집으로 도라갓다

그는 女子와 猶太人과 哲學者를 미워한것으로 有名하다 特히 哲學者인그가 哲學者들을 미워한것은 異常한늣김을 준다 그는 개를 유달리사랑하기때문에 그의遺言속에도 개에 對한말이 씨여잇다한다

一日一文

◇最近海外文藝消息◇

◇『좌코·스로바키야』에서 『챠펙크』에다음가는 人氣作家 또屈指하는 『아르네·또브오라크』博士가 刑事問題로 告發되어 目下同國의 新聞은 宏壯히 떠들고잇다한다

◇事件인즉 博士가 軍醫어엇든 關係로 入營해잇슬동안에 엇던富豪의 子息이 兵營生活을 咀呪하는데 同情이가서 거짓 診斷書를 만들어 그兵丁을 除隊식히는 手續을 해주엇다는것이다 『또브오라크』는 革命的思想을 품고 一時는 共產主義者로 活躍한 事實도잇다 歐洲大戰中에는 戰地에잇서가지고 戰爭을 실혀하는 兵士를 꽤만히 除隊식혓다는 所聞도잇서 軍籍에잇스면서 軍國主義를 排擊한사람이다

◇그가 『좌크』文學에 寄與한 貢獻은 莫大하야 劇作家로서는 史劇에 能한데 最近에도 國立劇場에서 『殺人의노래』라는 史劇이 上場되어잇는中이다 또批評家로서도 一流에 드는사람인데 그立場은 左傾的色彩가 濃厚하다

新刊紹介

◇國產獎勵(七月號)定價五十錢 發行所東京市京橋區銀座西五ノ三國產獎勵實行四

◇インテリゲンチャ―その特質とその將來―(向坂、鳥海共譯) 인테리겐차아問題 인테리겐차아의地方靑年 인테리겐차아와 無產靑年運動 인테리겐자아와 露西亞革命 인테리겐차아의 將來等 맑스主義的批判을網羅한外에 附錄으로 『카우스키』의 인테리겐차아論 學識者와 프로레타리아의 二論文이잇다 (定價一圓五十錢)發行所東京芝區櫻田鍛冶町十 三友ビル 大衆公論社振替東京一七五七

◇アメリカは如何に日本と戰ふか?(富士辰馬著)日米戰爭을槪觀함을비롯하야 七篇의論文外에 二條約全文附錄이잇서 一讀의價値充分(定價一圓廿錢)發行所同上

◇國際スパイ戰 早坂二郞譯(定價廿錢)發行所同上

◇明るい人生(佐佐木邦著)現代유ー모아全集第一回篇 發行所東京神田表神保町六 同全集刊行會振替東京七八三三七

◇理想(七、八月號) 이러리[illegible]의―考察(長谷川)外十一篇의論文(定價五十錢)發行所東京麴町一ノ五內幸ビル同社振替東京七八三〇三

◇實業之世界(七月號) 勞働組合法에對하야 資本家와無產黨의論文이잇고 新聞記者秘密手帖外에 諸論文滿載(定價卅錢)發行所東京芝區愛宕町三ノ三 同社振替東京三四三三

狂奔【225】

廉想涉 作 申樂汕 畫

또수색(二)

세번째 수색에는 의외로 중요한증거물이 나타낫다 한아는 산넝쪽으로난 동편문이 잠기지안흔것과 또한아는 [illegible]방에잇든 [illegible]쇠가 커다란 맹꽁이 장을쇠저人것인데 구나 그맹꽁이 잠을쇠가 알에人방―울순이 방에서 나온것이다

처음에 형사는 원랑이에게서 나온열쇠로 양관의 문마다 마처보며다니다가 동편문이 열린것을 발견하얏고 또그 문은 평시에도 여름이아니면 별로여는 일이업다는것을 집안사람에게 무러서 알앗지만은 그다음에 문짝이로 이 방에서 발견한 열쇠들 가지고는 열쇠구멍이 뚤린데마다 마초아 보앗스나 한아도 맛는데가 업섯다 몰론 귀분이와 침모와 상노들을 압세우고 도라다시들여와서 형사들은 안으로다 니엇다 상노에게 부러 그열쇠들 분일이 업섯드냐 고무롯스나 저계는 제세간이 괴人짝의 잡을쇠와 [illegible] 채우라고 사다가 둔 큰 잡을쇠의

다보더니 『여기 잇군요!』하는 반기는소리를 치며 한쌀을 집어너서 쓰내라고 하는것을 형사가 가만잇거라 하고 드려다보니 장발이 벽에다은 저뒤에 숨겨서 세워잇는것이 한참 본뒤에야 비롯오 어렴픗이 보이기는하나 원악이 컴컴하야 얼른보고는 몰을것이나 형사는 하여간 쓰내라고하얏다 큐기야에 쓰내는것을보니 그것은 칠이벗겨진 큰맹꽁이장을쇠인데 한번도 쓴듯이 업는듯이 새것일뿐아니라 그런틀박우니에 ㅆ어잇슴지경이면 먼지가 몹시안첫슬터인데 약간먼지가덥힌듯만듯한것으로 보아서 멧칠이고 수십일이고 그구석에 트러박혀두엇든것갓지는안타 그러나 언제보앗드냐고 형사가 뭇는데대하야 귀분이는 벌서 전에 보앗다고하얏다 적던가을에도 보고 겨을에도보앗다고한다 [illegible]에서본것은 아니나 여긔저긔서 보앗다고한다 형사들은 머리를기웃거리엇다 사온시가 멋달되엇드라도 쓰시안핫스면 칠[illegible]

부인

뚱뚱한이들의 알어둘치료법(一)

뚱뚱한것은보기흉할뿐안니라 의학상으로도낫부다

엇더케하면 좀더 뚱뚱해질가하고 염려하는 이가잇는한편 또여위기를 원하는이도 퍽만습니다 더욱이 삼십외의 젊은 녀성들중에, 피룸을갓고잇는이가 만습니다 사실 엽우나 뚱뚱한것은미용상보기 흉하다는것은 둘재분제로 의학상으로도 그다지 조흔것은 아이니생리적기능에 여러가지고장이

생기는 일이만습니다 더욱이 삽복더위와가튼 심한더위에는 살진사람일수록 견데기어렵습니다 혹 특별한 사람도잇스나 뚱뚱한사람은 대개더위에 견데기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체온조절작용에 이상이 생기는까닭에 더위에대하여 특별히파민해지는 까닭입니다 또땀을만히흘리는것은피부밋테

기름이 만흔고로신열을 밧그로내보내기 어려워 그대신 염수녕이 특별히 일을만히하게됩니다 이로논하여 염을만히 박그로내보내여 그것이증발할을뿐아 몸의열을 발산식히게됩니다 그런데 뚱뚱하다거나 여위나 고하는것은보통각사람의 보는바에따아 다른것이니 똑가튼한사람을 대해서도 하나는뚱뚱하다고보고 하나는여위나고 보고 또하나는알맛다고 봅니다 물론극단으로여위거나 뚱뚱한것은 별문제나 적당히살진것과 그이상좀더살진사람사이에는 그다지 심한경계선이 업는것입니다 보통 우리눈으로보아 꾀뚱뚱하고 기름이 만흔사람으로 아모괴롬도 늣기지아흘뿐아니라 아모 병적감각도업시 늘

쾌활 하며건강하게일하고잇는 사람도 잇습니다 이와반대로 쉬피곤해지니 일에 능률이업고 참백한얼골이되여 일견에 병잇는사람가티보이는 뚱뚱보도 꾀만습니다 이와가티 뚱뚱한사람은 체온을조절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늘신체운동이 제한됩니다 즉서만이

넘이 만허 맛치큰짐을지고잇는 것과 가틈으로 안거나눕거나 혹은서거나 것는데자연히몸을 움직임에 무거워 부자유하게됩니다 더 쉬이안되ᄆ으로후에는근육자히쓰시안케됨으로 언제든지 놀근육을 반치의힘까지도 약해서 심안운동은점점더할수 업 됩니다 그리하여 나종에는 혈액순환계통에 고장이생겨 심장이약해 집니다 즉언제든지

심장 이혈신더활동해야 되는한편 또한편으로는 심장은육중에 기름이집착하여소위지방심장(脂肪心臟)이라는것이되며 심장의 기능이 쇠약해지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뚱뚱한사람은 꾀젊으면서도 혈압이놉하지는일이만습니다

개와사람

▲—감옥에 갓진도적놈을그레도 …소에 자긔들 젊은은 이이라고감옥문 밧게서 딸개월 동안이나기달리고 섯든충견이 잇다

▲—『카도니—』라고하는 사나히는 『폭스』다 고하는 정찰견을어더길르게되여 자미붓처살다 가그후사개월이지난뒤도적질을하야딸개월이란 징역을 밧고꼿세감옥에서감옥사리를하게되엿다

▲—혼자남은『폭스』는주인이감옥에 갓친것을보고 그후부터는비가오던지 바람이 불던지 동양관을 하지안코기달리고잇섯는데 참기달린 효과가 낫던지 팔개월후에 다시주인을맛나게되엿다

▼…이충성스런『폭스』의지성에 감동된『카도니—』는 마음을 곳처먹고 그충견을데리고 그곳을떠나 새로운 생활을하려다른곳으로 갓다한다 이제는 사람에게잇던 노덕의힘니개에게옴겨가는가보다

새로생긴 파社朝鮮뉴스

特派員을두고서 朝鮮을紹介한다

미국파라마운트날본지사(支社)에서 조선에뉴—스 특파원(特派員)을두게되엿다는데 특파원은 파라마운트시사 헨리—소국(小谷)씨에게서 다년간연구하고잇든 림영일(林英一)씨와 조선영화를위하야 노력해오든 홍찬(洪燦)씨라하며 이번조선에서 일어나는시사(時事)고적(古蹟)등을촬영하야 미국에잇는파라마운트 뉴—스본사에제공(提供)하야 세계에소개(紹介)한다는바 금번에처음으로 전조선수해상황(水害狀況)을 촬영한뒤본사에보내엿스며 압흐로만흔활약(活躍)이잇스리라하며 림무소는 연지동선화는(光一三三七)이라한다

律動遊戱講習盛况

[illegible]와본사학예부후원의률동유희강습회는 예정과가티이십이일부터 개막하엿는데 각지방으로부터유치원보모백여명이참가하야대성황이다

女性의志壯

平壤의恩人 △△△△△△△

金仁貞女史의抱負(下)

圖書館設立에十萬圓寄捐

利己心을排斥 男便과도서로分離

김녀사가 이와가티 그의사회봉사의정신이 커갈수록 그의애써모아논돈을 조곰도 앗싸움니시사회사업에 긔누를 하게되엇든것이다 이것이남편되는 정모에게는 비위를상해주엇다 여긔서 사회사업에 돈을쓸려는김녀사와 어듸까지나 리긔주의적(利己主義的)인정모와는충돌이잇게되엇다

넘우나 남편되는 정모의간섭이심하야 김녀사가 일즉이평양고아원(平壤孤兒院)에천원과간도동흥중학교(間島東興中學校)에삼천원숭인중학교(崇仁中學校)에천원 서촌보광학교(西村普光學校)에천원을긔부한것도모다남편의 눈을속여가며 긔부한것이엇다 그러나김녀사의마음속에검접커가는 사회봉사심은 극단으로 리긔주의적인 남편을그대로 참고볼수는 업는것이엇다 그리하야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에단연히 정모와헤어지게 되고야말엇다

女史의財産觀 돈은사회사업비로

남편정모와 헤어진 김녀사는한편으로는 근검과절약의 생활을하야재산을더욱 늘려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모은재산을 사회사업에우쥰히 써갓나 김녀사는 항상 이러한『못로—』로재산을써갓다

『재산은 가치잇게써야그재산이 가치잇서지는법이다 그럿치 안흐면 그재산은 업는것만갓지 못하다』하고녀사는늘말한다 그리고세상에서 김녀사의 사회사업에봉사하는것에 대하야그분이야자손도 업고쓸곳이 업서서사회사업에 쓰는게지』하는억측에 어려한대답으로 응하는것이엇다

『만약 나에게저손이잇섯다할지라도 상속은 안해줄것이다자손에게 상속을하여주는것은 결국자식버리고 돈버리는외에 아무것도아니다』 하고긔염을토하는것이엿다

무산학구위해 연구긔관을설치해

남편정모와 헤여진후 녀욱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희생하는김녀사는 지금부터 일년전에민중도서관(民衆圖書館)을설립할것을 결심하엿다 그가도서관을설립하라는뜻은 도서관만이 민중의 공리긔관(功利機關)으로 가장유효 할것이라는것을 간파하엿기때문이다 배우고십허하는 무산학구(無産學究)들을위하야 그배움의 길을열어주는것은 도서관만이 잇슬뿐이라는것을 간파하엿슴으로 일개녀자의 몸으로서 더당히도 현금삼만원과부동산칠만원가격의 토지를던저 도서관을 설립하게된것이다 녀사는 도서관설립에대하야 긔자에게이럿케말하엿다

『도서관은 나의자식입니다 가장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아직도서관이 된권히 되지못하엿스니까 나는 지금임신(姙娠)중에잇는거나 맛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곳탄생케되겟지요 나는 나의재산전부를 나의사랑하는 자식인도서관에 상속할작정입니다』하고굿은결심을보혓다

그래도不滿해 할일이아직만타

어듸까지든지 사회사업의 봉사심(奉仕心)에불타는김녀사는 여간 도서관하나세우는것만 으로는 그의불타는 봉사심을만족할수는업섯다 좀더 큰사업이녀사의눈압해 널려잇지만 그것을 일일히실행치못하는그의마음은 더욱이안타까운것이엿다녀사는 왕방한긔자에게이럿케말하엿다

『도서관설립은 나의사회사업에 첫거름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니올시다 나에게는 아직남은사업이만습니다 나에게는 위선 평양에조선사람을 본위(本位)로한 신문과 관도 하나설립하고십고 무산자의 무료치료병원과 실업학교하나도 설립하고십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마마한 물질의실력이 업스니 오즉 가슴만답답할뿐입니다 하나 사회에서 반드시 이러한사업에 착안하실분이 나올것이라고밋습니다』하고 김녀사는 약간 안심의빗을보혓다 (평양)

童謠

무지개다리

南宮環

1
보실보실 보시락비 머추자마자
장독간에 봉사꽃치 방긋우스며
다리다리 고흔다리 무지개다리
하눌놉히 둥그럽게 걸렷습니다

2
옴긋붉긋 고흔빗! 헬수업는빗
동편하늘 머나먼곳 무지개다리
길다라케 둥그러케 다릴노앗네
보기조케 알락달락 물드려놧네

3
서편으로 넘어가는 붉은햇님도
가든길을 멈추서고 구경합세다
고개고개 넘을려면 곤하실텐데
무지개나 구경하다 넘어가시요

—1930·7·20·於京城—

投稿歡迎

童話、實話募集

귀여운어린이들의 녀름은깁허갑니다 서늘한 그늘밋, 밝은불빗아래에서 넷이야기를조르는 그들에게 들려줄 자미나고도유익한 이야기를 ——우리어린이들에게 꼭들려주고십흔 동화와실화를모집합니다 취미잇고 유익한 그들의 미래를 도아줄—— 천진한 그들의 어여분상상을모흔조흔 이야기를 만히 보내주십시요 실화든실혹은상상과 어린이란에 실리겟습니다

투고주의사항

一、원고지는 반드시 일행십사자로쓰되 사백행내외로할것
一、순국문으로 극히쉬운말로쓸것
一、원고를 보낼때는 겻봉에반드시『어린이조선』이라고쓸것
一、원고는절대로반환치안슴니다

조선일보사학예부

어린이조선

『세루마』의전설(七)

함아득 譯

혁혁한바라는 위선 케일쎄의남금님으로 이나라를 다사리게되엿습니다 동생의 『부이트바라』는그동안에『타돈』으로가서여려가지학문을 배웟습니다 유달리우에가깁던 이두형제는 처음으로 거처를달리햇슴으로 편지와하인을 보내지안커나 걸른는일은 별로업습니다 외가조흔두형제의힘으로 당박에 이나라는아름다웁게 되엿습니다 부처님의말씀을 의심한것은 아니지마는실로 눈도거듭떠 보지안흔적은섬이든것이 이러케 큰나라로변해가는것을보는 인도사람들은 가만히 잇지를못햇습니다 그래서 인도사람들은결국

『이나라는 우리나라영임으로 순순히 내어노코 가거라』하면서 달려와서는

『우리나라땅이 분명하다 이섬은 아즉케딕지만 하엿슬때즉 겨우 머리만바다 물결우로내노앗슬꿰 영을파보자 거긔에는 우리들인도사람의 조상이 인도나라의 년호를 색여너흔 아홉개의 금솟이 파뭇처잇슬것이다

그래서 온나라가 발근뒤집혀서 만흔사람이 모혀 그참증거를 소사하게되엿습니다 그런데이상한것은 금솟우에 은솟이언치고 은솟우에 추가들은 은쟁반이언첫슬것이 웬일인지 금솟이케일우에언치고 그뿐아니라 아홉개의 추가들은 은쟁반은어데로인지 사나커버리고 말엇습니다이것을 본인도사람은참잣코도라가지이율수 [illegible]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보고 『야추들 도적마첫나 추들 도적마첫 이것다』하고 떠들어댓습니다 이것은 『라—자미』이라고 부르는 천사장이 생긴지 몃칠아니되는 아름나운나라가 당장에망해버리는것이 앗가워 할아버지의몸으로변하야 세상에나려와서 케일우헤다 언커논것입니다 그럼일밋헤잇는 금솟을쇠내서는 케으로『세두마』사람들은 이나라를『쎄규—』라고부릅니다『세두마』말로추들이저버렷다는 뜻입니다『쎄규—』국이 이와가튼국란으로부터 구원되어 점점나라가커갓습니다

『쎄규—』로부터 조금떠러진 엇던산속에 『라—운드』라고부르는 족속의두목은이가 살엇습니다 가난한그들은 파닥지만한 밧을갈어서 그날그날을 런명해갓습니다 그해는 밧 쥔판에다 호박을심엇는데 엇젼일인지 잘열지가안어서 두목은이는 한

라듸오(廿四日)

午前十時〇分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 十時四十五分 料理『관치맨드는법』『슈단』 日用品價格 正午時報뉴—쓰 午後〇時二十分 講談 二時十五分 夏季講座夏와海(二)聽德奉 三時四十五分 뉴—쓰 官廳公示事項 五時三十分 라듸오體操職業紹介事項今夜의順序 六時〇分 童謠合唱京城音樂講習會會員伴奏指揮吉澤實, 六時三十分 朝鮮語講座 石井鍘 七時〇分 뉴—쓰 官廳公示事項明日의順序 七時二十五分 衛生講話傳染病에對하야 八時〇分新內 八時五十分 音의描寫曲(東京) 水와影 九時三十分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時報 九時四十五分 南道短歌와雜歌一、短歌二、春香歌三、六字歌外金秋月

今後決定이注目되는 府受益稅課稅의問題

一般府民의監視와研究가必要하다

그最初原案의內容(二)

四、하수도의신설개량에는사업비의삼분지일

◇이와가티 사업비의멋부분을 전긔지역안에잇는 토지에 분배하여 노흐되 수익이만코 적은것을 구분하여 비률(比率)을일개지대(一個地帶)혹은수개디대(數個地帶)로정하고그개소에 조차 세금을과하게된다 그럼뿐아니라 세금은 부윤이필요타 인정할때는과세지역(課稅地域)을 신설도로 폭원의십배까지는릴수가잇고 세금액도 사업비의삼분지이까지도 느릴수가 잇게되엇는데 이로써보면 부근사람들이 공사비를 내여가지고도로를신설하는것과가튼 의미가 된다고도볼수가잇다 그리고 수익세는 공사착수하는날의 현재로 납입고지서를 부윤이 발행하는데 각수익자는일시에 그세금을 납입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스며 납긔(納期)전에 수익자가이동될때에는 새로운수익자가 그세금전부를 일시에 내여야만되게되엇다 또한세금은 전긔와가티 일시불(一時拂)로하여야만되지만은 혹당보물을 제공하는경우에는분납(分納)도허가한다

◇그박게도 수익세에대한 조례는 사정에의하여 세금을 감면(減免)하는 규정 세금납부에관한 방법을 규정한것등이 잇스나 수익세에대하여 대략한골자는우에 씨운것과갓나 그런데 이수익세가실시되면제일착으로 시행될곳(금넌도중에)이어듸냐하면내자동(內資洞)——효자동(孝子洞)간도로 욱정(旭町)일정——동이정목간도로 종로(鐘路)사정목—동대문 간도로 원정(元町)삼정목——강긔정(岡崎町)간도로 등이오 총독부앞으로 부터대학병원에까지 닐으는 도로에는수익세를 적용치안는다(그리유는 본보에 긔위보도)

◇그러한데 도로가신설됨으로 말미암아 그도로연변사람의 밧는리익이그도로를 신설키위하여 사용하는 사업비의삼분지일이 되겟느냐 안되겟느냐하는것은 크게연구할 문제이며 또한장구한세월을 두고는모르되 일시에그만한 리익이잇것느냐하는것은 문제인데 수익세조례에는 뎌허노코 단지그사업비를 표준하여일정한 지역내에 그멋무분을 떠노흔후 이것을수익세라 하지만은 실제수익이얼마나 되느냐하는것은 도모지생각지안하엿다 가량 내자동으로부터 효자동까지 약오백오십간의 도로를 신설하기위하여공사비로 십륙만구천원이들고 사무비로 약일만원이드는데(금년도예산액)이것에대한수익세(십칠만원에대한 삼분지일)오만륙천칠백원이란것을 세금으로 내이고도 부근주민이 리익을바들수가 잇겟느냐 하는것은알수업는일이다 더욱이 세금을일시에 그부근주민에게로 부터 바더내이게되면 그주민들은 리익은그만두고 큰재액을 당케되는일이 업다고도할수업는일이다

◇이수익세 에대하여경성부에서는 우에말한바와 가티 금년도 예산실시상 엇지하엿든지 이세제안에 관하여총독부의 인가를엇고져 초조하는 중이나 한일인측일반부민의리해관계가중대하는 세률의감액이 얼마정도로나되는지 일반부민은 크게감시할필요가 잇는동시에 또한이수익세란것은 크게 연구할문제이다(海生)

全朝鮮의首位로 死傷實로千七百

家屋流失倒壞浸水가五千에 船舶의難破가三百七十五隻

江原道水害의續報

금번강원도(江原道)의피해정도는 해륙이아울러 혹심한바 특히 인축의 사상이심한점에서 을축년(乙丑)보다 훨신더한 참화로 死者及行方不明이 一二八二名 負傷者가三二六名 家屋流失이六一七戶 全壞가三八六戶 半壞가二九七戶浸水가三、四五六戶 漁船難破行方不明이 三七五隻 其他農作物道路橋梁破壞가多數하다

위선판명된 사실만 이러한바이는전조선적 수위임을 말하고잇는것인데 이에대한 당국의구제대책을도지사리범익(李範益)씨에게들으면

전래로 예산면에는 흉겸구제비(凶歉救濟費)가겨우칠천삼백삼십칠원박게 안되는데 림시은사금의 편입과 국고보조금지방비보조를 합하야 약사만원가량으로 지방유지들과 련락하야구호에유감이 업기를 기할터인데 사자급 행방불명엔 삼십원식두상자엔 십원식의 조위금과가옥류실에 십오원 권괴에십원반괴에오원식 위로금을 지불하는외에일반리재민은 식량을 구입하야구급중이라고말한다(춘천)

未曾有의元山水害

一洞의死者만五十餘

그外生死不明도數百에達하고 繫留漁船六十隻破損

원산대수해(元山大水害)의 참상은 이미 보한바 이어니와 이제다시 조사된정황을 보도하면 시난 십팔일오후다섯시 경부터모진태풍(颱風)과해소(海嘯)로인하야 원산근해에는 전에보지못하든 참상을 이루엇는데해안에 계류(繫留)하얏든 어선은 모다 파손되야 판명된것만으로도륙십여척에 달하고 바다에나갓든배들은 얼마나 전복되얏는지그수를 알수업다하며 사상자가수백여명에 달하야 련두도리(蓮斗島里)방면에만 사자 오십여명에 생사불명이 수백여명에 달한다는바 요시음 원산근해에서는 바다에떠나려오는 시체를 종종발견하는 것을보아 부근각지에 참사자가다수한것을 가히 알수잇다 이번수해의 손해액은 목하조사중이나 수십만원에 달하리라고한다

市內家屋浸水만 一千三百餘戶

그中倒壞가百餘戶

이번대수해로 말미암아 리재민(罹災民)의참상은 이로형언할수업다는데 원산시내에만 침수가옥이 일천사백여호 도괴가옥이백여호에달하야 집을일코 거리에서 헤매이는 남녀로유(男女老幼)와 집은비록남아잇다하더라도 먹을것이업서서 울고잇는광경은 보는사람으로하야곰 동정의피눈물을 먹음게한다는바 이제그침수와 도괴된가옥을 지역별로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場村洞 浸水三七八戶 倒壞五戶
▲新下洞下村洞方面 浸水一四七戶 倒壞一八戶
▲中里方面 浸水一六二戶 倒壞二十五戶
▲新下洞新村洞方面 浸水三二七戶 倒壞四戶
▲上里方面 浸水三〇戶 倒壞二戶
▲北村洞方面 浸水七四戶
▲上洞銘石洞方面 浸水二二〇戶 倒壞五戶
▲葛麻方面 浸水四〇戶 倒壞五〇戶
▲其他 浸水三〇〇戶 倒壞五〇戶

中國官憲의虐待로 北平同胞一人獄死

贈賄者는釋放、無賄者는獄死뿐

戰慄할이事實을보라

작년십월혁명긔념일 (革命記念日)에중국북평(北平)에서 중국학생수천명이『타도제국주의』의 표어아래 일대시위운동을 행한 일이잇섯는데 당시에 중국공안국(公安局)에체포된학생이삼십칠명인바 그중에는 구경을나갓든 조선학생세사람도 들어잇섯다 공안국에서는온갓혹독한고문을하엿스나 아모증거도업슴을 불고하고경비사령부(警備司令部)에이송하야이월까지 손발에철쇄 (鐵鎖)를채워 구류하여두엇다가다시지방법원(地方法院)에넘기엇는데 그곳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원간 석방될줄만밋고잇는동안에 다른중국학생들는 범죄사실이잇슴에도 불구하고 뢰금(賄賂)을 밧치고 경비사령부에서 벌서석방된자가만코 오즉빈궁한 중국학생이명과 우리학생장문상(張文相)씨외량씨는지방법원간수소(看守所)에륙월초순까지 두엇다가 조선학생측에서 부탁한 률사(律士)에게도 개정일자를 알리지안코 비밀리에이년의선고를하야제일감옥 (第一監獄)에보내엿다 그중장(張)씨는폐병(肺病)이위독함으로그친지들은 백방으로 주선하야의사의진단서와법원장의긴급보고까지어더 법관에게 장씨의 보석을간청하엿스나 각하되고말엇다이리하야 전긔장씨는 금월팔일에악날(惡辣)혹독(酷毒)암흑(暗黑)한중국사법당국의야만적독수(毒手)에 걸려 드듸여이십세의 앗가운 생애를일괴로하고 그만북평(北平)제일감방(第一監房) 병감(病監)속에서부참히도 절명하엿다고한다 남어잇는 두조선학생도 현재는복역중이나 고초가 언어도단한중의또압흐로도 엇지될까하야 북평에잇는형제들은우려하야마지안는다고한다

緊急救濟會組織

모진비바람을무릅쓰고활동

各社會團體聯合

八處에數千名을收容

미증유의 재난이 이러나자원산에잇는 각사회단체에서는 시급히원산 사회단체 련합수난구제회 (元山社會團體聯合水難救濟會)를조직하야가지고십팔일밤부터 각단체인원 수백여명이 출동하야 리재민구제에 노력한결과집에잇든 이축의 사상은다행히 업게되엇나는데 이번구제회에참가한 단체와 중요임원은 다음과갓다 고한다

參加團體

元山勞働聯合會 元山靑年同盟 元山市民協會 新幹會元山支會 槿友會元山支會 元山少年斥候隊 元山基督敎靑年會 元山天道敎靑年黨 中外 東亞 朝鮮日報三支局 (以上十一個團體)

任員

會長李可順 副會長魏衡淳康基德 庶務部金相翊 咸錫熙 金明善 財政部金用斌 金眞佳 南百祐 南觀熙 李春河 安敎羲 調査部李弘俊 金河善 韓洛叙 李在春 黃榮奎 朴燦鎬 救護部金景俊 李錫保 黃世鍵 全均 金仁成 崔義駿 李鋒 金正浩 崔泰瑩

전긔수난구제회구조대원백여명은불철주야하고모진비를무릅쓰고피난민을구제하야천여명을수용하고십구일과이십일량일간은 밥을지어즉접수용자에게배급하얏는데수용된장소와인원수는다음과갓다고한다(춘천)

第一區‖元山勞働聯合會館 收容人員一百十名
第二區‖基督敎靑年會館 收容人員二百五十名
第三區‖市民協會館 收容人員四十名
第四區‖第一普通學校內 收容人員八百餘名
第五區‖中星禮拜堂 收容人員七十名
第六區‖商業學校 收容人員四十名
第七區‖天道敎宗理院 收容人員一百十名
第八區‖佛敎布敎堂 收入容員三十名
以上合計一千四百五十名其外葛麻驛과車中에五百餘名

汎太平洋佛聖大會 布哇서開會한다

이십일일오전아홉시부터 六日間繼續하야開催

불교(佛敎)를세계에선포하며각국청년불도(靑年佛徒)의제휴련락 (提携連絡)을도하기로목적하는최초의 범태평양 불성대회(汎太平洋佛聖大會)는이십일일오전아홉시 『하와이 호놀루루』 불성회관(佛聖會館)에서일미대표(日米代表)일백칠십여명출석리에 성대히개회되엿는데 개회벽두에 『와드』 지사(知事)와적송총령사(赤松總領事)가축사를 진술하엿스며 회의는 륙일간계속개회되리라한다

農村處女暗中生理한 白白敎는豫審에

모다십이인이긔소되어 全部有罪로起訴

강원도김화(金化)회양(淮陽)등 각처에잇는 수천우매(愚昧)한 민중을 롱락하야 소위신(神)을 숭배한다는 종교단체백백교(白白敎)라자칭하고 륙십명이나되는앗가튼 농촌처녀들의 아름다운 정조를유린하야 첩(妾)을삼기르다가 조금이라도 불평을부르지즈면 신의명령이라하야 무자비하게 한부하를사족하야여지업시이세상에다시업는생매(生埋)!교살(絞殺)등모든만행(蠻行)을방탕히행하든 사교(邪敎) 백백교의 교주라는 전정운(全廷芸)(六三) 일파의 무서운 살인사건의범행자는 그후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검사국에서민검사(閔檢事)의손에 엄중한취조를진행하든중드듸어 이십이일 오후에전부유죄로확정되어무서운살인죄로다음과가튼열두명이모다동법원예심에회부되엇다

◇豫審回付된者

康明成(六一) 崔允一(四〇) 崔萬守(三三) 金弘烈(六〇) 韓用基(六〇) 李丙贇(四九) 金景石(四一) 崔高岩(六三) 崔萬玉(四三)外三人

北靑을中心 또檢擧旋風

리의종을리원으로부터호송

高光洙事件의餘波?

작년에 국제공산당원고광수(國際共產黨員高光洙) 가북청에서 검거되자 그사건의련두로서 엄중한경계망을 피하야 탈주한이래지금까지 률실를 는 경계망을귀신가티 피하야가며 북조선일대는물론 대당하게도 북청시내에까지도 수차 잠입하얏슴엔만아니라 함경남북도(咸鏡南北道) 일대에 여러차지난번의격문사건에는 주모활동을 하다가함경선나흥(羅興)역에서검거수백장을품은채로 검거된 북청읍내에 원적을둔리의종(李義鍾)은리원(利原署)에서 지난십팔일에북청경찰서로 호송되어 왓다는데 그익일인 십구일에 일으러서돌연히지난번의 격문사건과 신흥탄광사건으로 피검되엇다가석방되엿든읍내리동 리동영(李東永)과서상원(徐相玩)을다시검거하얏는한편 읍내의강석진(康錫鎭) 외신창(新昌) 청년일명도검거하야 방금 엄중한취조를 하고잇다는데 사건내용에 대하야는 비밀에부침으로 상세한것은 알수업스나작년의고광수사건(高光洙事件)과 격문사건(檄文事件)인듯하다한다(북청)

新幹大會의方針

中央會決定

긔보와가티 신간회본부 (新幹會本部) 에서는구월십이、삼사삼일간 전체대회를 열게되엇슴으로 전체대회의 적권인구월십일십일일 량일간 중요이정목본부회관에서 금년도 제일회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체대회에대한본부의 방침등을 결정하리라더라

死刑求刑에 十二年言渡

검사는불복코공소할모양

淸津府疑獄事件判決

긔보‖공금횡령방화 (公金橫領放火)등을감행한 함북청진부의옥사건(咸北淸津府疑獄事件)의 판결언도는 지난십일 오전아홉시반청진 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제일호법정에서 로(盧)판중(田中)배석판사 송긔검사(松崎檢事) 박(朴)서긔립회하에개정하얏는데 검사의 구형이극형이니만치 판결의결과를 알기위하야 몰려든방청인은 정각전에벌서만원되얏다 산전(山田) 김(金)립야(立野)림부(林部)등피고가 간수에게 쓸려입정하야최후의판결을 기다리든중 재판장으로부터는 다음과가튼 언도가잇섯다

懲役十二年 山田朝之進
同 金東洙
(以上死刑求刑)
懲役一年半 立野忠習
(求刑二年)
但二年間執行猶豫
懲役六個月 林部俊亮
(求刑一年)
但一年間執行猶豫

전긔에대하야 검사가극형을구형하얏든바 재판장은 이와가튼 한판결을하얏다 하야 송긔검사는 판결을불복하고 공소하리라한다(청진)

또다시被疑者로 咸興署員兩人檢束

비밀리에련루자를취조

함흥은 부원의지정면이 부제로 실시될시긔를 압두고 면사무소에서는 수차횡령사건이 생겻스며 또한함흥서에 의옥사건은모다예심에회부되엿고 기외에 동사건련두자취조에 함흥 검사국(咸興檢事局)은 매우 활동을한다는바 지난십오일에 검사국에서 함흥서원(咸興署員) 두명을 검속하고 또한련두자인김모(金某)외지검속하엿다하여 함흥서의옥사건은 점점세상의 주목을 쓰을게되엿다 한다(함흥)

電鐵軌道流失

금강산의 단발령(斷髮嶺)과 금강구역(金剛口驛)사이에잇는생신원리 (上新院里) 부근의전철괴도(電鐵軌道)가이십이일에약삼백간이 류실되엇슴으로 철도는불통되엇다 고한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七月廿三日京城測候所發表 高氣壓은日本의南東海上에널퍼러지고朝鮮은氣壓의傾斜가緩漫하야西朝鮮灣에는小低氣壓이잇스며北東岸은雨其他는曇이다明日도大槪는曇天이다

氣溫 昨日 最高 二三度四 最低 三一度八